

TV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00 굿모닝! 채널A입니다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위험한 여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08	00 생방송 김성주의 모닝카페	25 아침이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09	00 해피엔드 101가지 부부 이야기(재) 30 월화미니시리즈 <컬러 오브 우먼(재)>	30 KBS 뉴스	00 TV 소설 <목회누나> 40 여유만만	30 아침연속극 태양의 신부
10	40 노컷~김수미의 쇼킹(재)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50 지구촌 뉴스	10 좋은아침
11	40 너는 내 운명(재)	00 행복한 고심 55 바른말 고운말	10 스포츠 타임 20 TV특강(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10 채널 A 뉴스와 경제 30 보이는 특강	00 KBS 뉴스12	00 수목 드라마 <영광의 재인(재)>	00 SBS 12 뉴스 30 건강클리닉
1	20 여행이 좋다(재)	00 글로벌 성공시대(재) 50 아름다운 사람들(재)	10 호루라기(재)	30 한국의 숲 스페셜
2	20 이산가족 공동 프로젝트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10 2011 고교 아이스 하키리그 영웅영전	00 KBS 뉴스타임 05 유로링 동물탐정(재) 35 출발! 모나리자호 미술탐험대	00 SBS 뉴스 10 세상살건 유레카(재)
3	30 그 여자 그 남자(재)		00 키즈 언데드처 여기가 어디야 50 MBC 뉴스	10 인문학 열전
4	30 개그시대(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네트워크 특선 소화제2	00 TV 유치원 30 파워 마스크	00 주블스 30 꾸러기 탐구생활
5	40 채널 A 뉴스네트워크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다류로 만나는 세계
6	00 다섯 남자의 맛있는 파티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세상	00 KBS 6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00 뉴스메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7	00 생방송 연예인사이드	00 KBS 뉴스 7 30 스키우트	45 스타 인생극장 <원더걸스>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내달 꽃님이>
8	00 해피엔드 30 채널 A 뉴스830	25 일일연속극 <딴집사(재)>	20 세계는 지금 55 비타민	15 일일연속극 <오늘만 같아라> 55 MBC 뉴스데스크
9	15 채널 A 스포츠 투나잇 20 불멸의 국가대표(재)	00 KBS 뉴스 9	55 수목 드라마 <영광의 재인>	55 SBS 대기획 <부림(재)>
10	30 김수미의 쇼킹	00 KBS 특별기획 신인류 호모 현대드레드가 온다 제2편 50 아름다운 사람들		
11	40 너는 내 운명	00 KBS 뉴스타임 40 수요기획	05 추적 60분	15 테마스페셜
12	10 채널 A 한밤뉴스 20 컬러 오브 우먼(재)	25 KBS 뉴스 35 클래식 오디세이	05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TV 50년 임코르 정반노래방	15 TV백과사전 25 나이트라인 35 휴먼다큐 나눔

“영화적인데 보아와 동방신기 도움이 컸죠”

고아라, 내년 초 개봉 '파파'서 춘첩 딸 준역

“보아 언니는 영어를, 동방신기의 윤호 오빠는 춤을 가르쳐줬어요.”
고아라가 13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열린 영화 ‘파파’ 제작보고회에서 한 말이다. ‘파파’는 자기 가수를 데리고 도망간 후배 매니저를 쫓아 미국으로 간 매니저 춘첩(박용우)이 예기치 않은 계약 결혼을 통해 자녀 6명이 생기면서 펼쳐지는 좌충우돌을 그린 다.
고아라는 춘첩의 첫째 딸 준역을 소화했다. 뛰어난 노래실력으로 미국에서 스타가 되는 캐릭터다.
그는 “영화 찍기에 앞서 두달 정도 춤, 기타, 노래를 연습했다”며 “‘소녀시대’가 데뷔하기 전에 멤버 2명과 함께 연습했었는데, 그때의 경험이 영화를 찍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춤과 연기에서는 같은 소속사(SM엔터테인먼트)인 보아와 동방신기의 유노윤호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보아 언니는 미국 현장을 찾아와 영어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영화에서 제가 하는 동작이 남자 춤이어서 잘 추기가 쉽지 않았 습니다. 윤호 오빠는 많이 아니지만, 회사에서 지나가다가 한두 번 봐주더라고요. 제게 ‘열심히 해야겠다’고 그러더군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파파’는 드라마 ‘연애시대’를 연출한 한지승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한 감독은 “그동안 가족의 소중함을 (연출)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며 영화를 만들었다”며 “그 연장 선상에서 이번에도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담기 위해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영화 촬영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울로케이 선으로 진행됐다.
한 감독은 “할리우드는 촬영 시간에 제약이 많은 시스템으로 우리 시스템과는 사뭇 달랐다”며 “그곳 시스템에 적응하는 게 힘들었다”고 했다.



박용우도 “하루에 4~5시간을 자면서 촬영하는 강행군이였다”고 했으며 고아라도 “시간 제약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4배 이상 집중해서 촬영했다”고 했다. 영화는 내년 1월 19일 개봉한다. /연합뉴스

‘울지마 톤즈’ 교황청 케이블서 방영

KBS는 자사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가 로마 교황청 산하 케이블 TV에서 방송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KBS는 “로마 교황청은 ‘울지마 톤즈’를 교황청 산하 케이블 TV에서 방송하고 전 세계 교구에서 상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방송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주교황청 한국대사관은 15일(현지시간) 오후 5시30분 로마 교황청 베드로성당 세미나홀에서 ‘울지마 톤즈’가 상영된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교황청의 주요인사뿐 아니라 각국 대사와 이탈리아 전 세계 교구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울지마 톤즈’는 아프리카 수단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다 지난해 1월 암으로 세상을



을 떠난 고(故) 이태석 신부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4일(음 11월 20일 癸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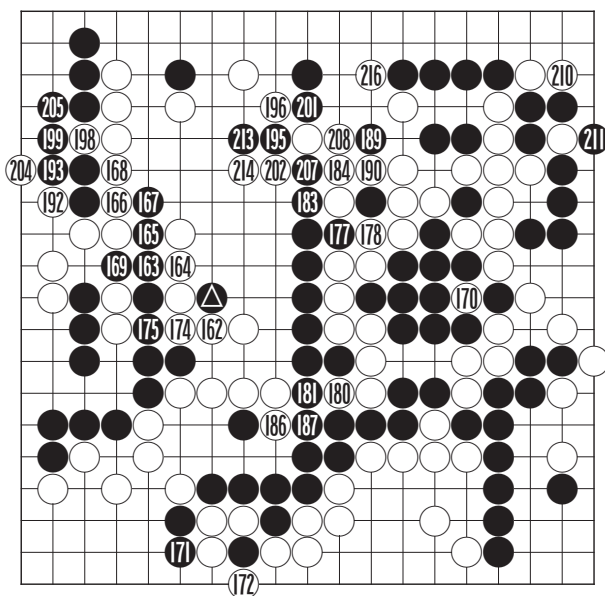
子	36년생 인정 끝에 손재수가 올 수 있음이라. 48년생 협력자를 만나 큰 도움 받는다. 60년생 집안에서 출겨우면 밖에서도 순조롭다. 72년생 더불어 하지 말고 혼자 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 84년생 마음은 있으나 자존심 때문에 본심을 드러내지 못한다.행운의 숫자 : 61, 33	午	42년생 자기 중심적이지 않거나 반성해 불일이다. 54년생 옛 감정을 털어 버리면 새로운 정이 든다. 66년생 실행하지 않으면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 손실이 줄어든다. 78년생 학생고대하던 소식을 접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5, 97
丑	37년생 실언을 주의하지 않으면 후회하리라. 49년생 친지의 사업 계획에 따라 휩쓸려 들어갈 수 있다. 61년생 타하지 말고 자신의 불찰을 먼저 인정해야 해결된다. 73년생 파도 높으니 항해 유보하라. 85년생 거리감 없애기 위한 친근감을 어필하라. 행운의 숫자 : 73, 81	未	43년생 풍량이 도움이 되지 않거나 머지않아 순조로 바뀌리라. 55년생 충고를 소중히 간직하라. 67년생 남을 높이면 자신도 격상되리라. 79년생 달린 삼키고 쓰면 밟았다가는 불쾌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9, 17
寅	38년생 목전에서 속이는 이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 50년생 처세를 잘 해야 사람을 잃지 않겠다. 62년생 가정의 알뜰한 살림은 부국 경제의 밑거름이다. 74년생 중독적 구매로 불필요한 것까지 사들이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6, 97	申	44년생 외부의 즐거웠던 일이 가정의 활력소가 되어 준다. 56년생 속셈을 미리 간파하여야 할 사람이 있다. 68년생 남모르게 하는 선 행이야말로 참된 삶의 가치이다. 80년생 돌발 선언을 할까봐서 참 불안하다. 행운의 숫자 : 54, 74
卯	39년생 종류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라. 51년생 앞뒤를 잘 가려서 처리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될 수 있다. 63년생 가득 찬 창고가 모두 다 자신의 것은 아니다. 75년생 서로 협동하여 추진해야 성과가 나옴이다. 행운의 숫자 : 82, 02	酉	45년생 의외의 돈은 쉽게 사라진다. 57년생 방심하다가는 크게 죄라 함을 먼저 못하리라. 69년생 자녀와 떨어져 살아야 할 일이 생기지만 발전적이다. 81년생 덕을 베풀면 하늘의 도움을 받고 만사여하하리라. 행운의 숫자 : 06, 99
辰	40년생 가정의 힘은 함께하는 식탁에서 나온다. 52년생 성공이 눈앞에 있으니 달리는 말에 제책을 가라. 64년생 근육통을 느낄 수 있으나 큰 병은 아니다. 76년생 많은 변수를 예고하고 있음을 감안하자. 행운의 숫자 : 40, 90	戌	46년생 마음이 불편하여 안정을 찾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겠다. 58년생 자기 할 탓이니 참되게 행하라. 70년생 상여금을 받는 행운이 따른다. 82년생 여러 가지 예외적 변수가 발생하여 당황할 수 있다. 83년생 공중도덕을 준수하지 않으면 크게 지탄을 받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6, 62
巳	41년생 계획한 일은 잘 이뤄지겠다. 53년생 아무 소용없는 일에 대해서는 빨리 미련을 버려라. 65년생 아늑한 보금자리에 불청객이 끼어들 수 있다. 77년생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 사람이 좋으니라. 행운의 숫자 : 66, 41	亥	47년생 주변의 덕으로 재반사가 순행한다. 59년생 전혀 전진이 없었으니 우회하라. 71년생 평생가며 운전하다가는 중앙선을 혼동할 수 있다. 83년생 공중도덕을 준수하지 않으면 크게 지탄을 받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2, 9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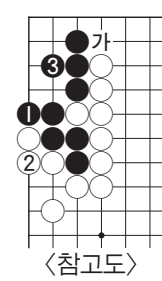
제20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경비록대회

준결승 2국 7보(162~217)

黑 조영배 5단 (주택관리사회) 白 정장호 5단 (포스코)



배부른 팻감



<참고도>

위기의 순간에 찾아낸 ▲가 좋은 수였다. 이 수가 아니라면 백 두 점이 살아가 흑 전체가 위험하다. 백은 162로 돌 수밖에 없고 ▲의 효과로 167까지 머리를 내민 다음 흑 169로 백 두 점을 잡아 가까스로 대마의 삶을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우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패싸움이다. 이 패는 흑은 대마의 사활이 걸려있는 저서는 안되는 천지대패이나 백은 부담이 없다. 적당한 대가만 받아 내도 우세하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고통스럽게 짝이 없다.
치열한 패싸움의 와중에 좌상귀 백 204로 두었을 때 정수는 ‘참고도’의 흑 1로 받아야 한다. 그러면 3까지 된 다음 백이 ‘가’로 막는 수가 선수가 안된다. 실전은 정 장호 5단이 고심 끝에 팻감을 고려하여 흑 205로 이었기 때문에 ‘가’로 막는 수가 선수가 되었다. 큰 차이며 갈수록 흑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
백 216은 배부른 팻감이며 흑이 불청하여 지루한 패싸움이 끝났다. 과연 누가 이득을 보았을까.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굿모닝 잉글리쉬	한자이야기	니하오 풍구위	오하오우 니혼고
<p>What does John do for a living? 존은 뭐하면서 사는데?</p> <p>A : What does John do for a living? B : He's a salesman. A : That's a difficult way to make a living. B : Well, remember. No pain, no gain.</p> <p>A : 존은 뭐하면서 사는데? B : 영업사원이야. A : 그래가지고 살아가기 힘들겠네. B : 하지만, 기억하라우. 노력하지 않고 얻는 건 없다네.</p> <p>* 그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 He makes a living by teaching. = He teaches for a living.</p> <p><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p>	<p>약관(弱冠) 약할 약, 갓 관</p> <p>약관(弱冠)은 남자가 스무 살에 관례를 한다는 뜻으로, 남자 나이 스무 살 된 때를 이르는 말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10년은 유(幼), 어리다 한다. 이때부터 공부 시작한다. 20세에는 부드럽고 약하다는 뜻에서 약(弱)이라 하며 갓(冠)을 쓴다. 30세가 되면 장(壯)이라 하며 집을 가진다. 40세를 강(強)이라 하며 벼슬을 한다. 50세를 애(艾)라 하며, 중요한 관직을 맡는다. 60세는 기(耋)라 하는데, 남에게 명령을 내리고 부린다. 70세는 노(老)라 하며, 집안일을 자손에게 맡긴다. 80~90세를 모라고 하며, 모는 죄가 있어도 형벌을 더하지 않는다. 100세가 되면 기(期)라 하고 공양을 받는다.” 즉, 약관(弱冠)은 약과 관을 합친 20세의 성년에 이르는 남자를 일컫는다.</p> <p>[출전] <예기(禮記) 곡례편(曲禮篇)></p> <p><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p>	<p>三分人様, 七分打扮 속지말자 화장발</p> <p>“30%(三分)는 외모(人様), 70%(七分)는 꾸밈(打扮)이다 - sānfēn rényàng, qīfēn dǎban” 우리말로 해석하면 ‘옷이 날개’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학 신입생 때 자주 들었던 말 중 ‘속지말자 화장발, 조심하자 조명발’이란 말이 있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남녀간에 외모보다는 내면을 보라고 하는데 내면을 알아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요. 단지 3할의 외모와 7할의 꾸밈새에 혹 하여 넘어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p> <p><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氣をつけたほうがいいです。 주의하는 편이 좋아요</p> <p>A : 田中さんはお金を擦られたことがありますか。 B : いいえ、一度もありません。朴さんは。 A : 私は地下鉄の中でお金を取られたことがあります。 B : どこにも泥棒は有りますから、氣をつけたほうがいいです。 A : 다나카 씨는 돈을 쓰러 당한 적 있습니까? B :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박 씨는? A : 나는 지하철 안에서 돈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B : 어디에나 도둑은 있으니까, 주의하는 편이 좋아요.</p> <p>[단어정리] ▷犬が私を咬んだ。 私は犬に咬まれた。 개가 나를 물었다. ----> (나는) 개한테 물렸다. ▷小説を書く。 小説が書かれる。 소설을 쓰다. ----> 소설이 쓰여지다.</p> <p><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p>